

2023

추석명절 가정예배(추도예배)

묵상기도 _____ **다같이**

신앙고백 _____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_____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찬송가 559장) _____ **다같이**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대표기도 _____ **담당자(뒷면참조)**

성경봉독 _____ 마가복음 3장 31~35절 _____ **다같이**

-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설 교 _____ **인도자(뒷면참조)**

합심기도 _____ **다같이**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예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예문

예수의 가족 / 마가복음 3장 31-35절



양꼬없는 찐빵. 주인공이 빠져버린 모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없는 아빠의 생일잔치, 학생이 없는 학교, 선수가 없는 운동 경기 등, 어떤 모임을 상상해도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자식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적인 것이 아닌 흘러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확장판 선물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성도와 의 사귄을 통해, 우리는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는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는 가족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중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 ‘밖에’ 있는 가족들

본문의 31절과 32절에는 ‘밖에’라는 독특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 단어가 독특한 이유는 가족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참 따뜻한 단어인데, ‘밖에’는 무척이나 차갑게 느껴집니다. 호칭은 예수의 가족인데,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밖에 머물러 있을까요?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단지 귀신들린 상태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했음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예수님 밖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가 그들을 어색한 자리로 인도했던 것입니다(막3:21-22). 결국 예수님은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막3:32-33).

(2) 진짜 가족들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고 선언하십니다(막3:34-35). 왜요? 이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칭이나 직분이 예수님의 가족 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봉사할 하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해 봅시다. ‘밖’이 아니라 ‘안’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말로만 믿음을 외치는 가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만 예수님을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귄의교회 권속(household) 모두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만 머무는,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